



부산성모병원

동행

환우의 쾌유를 우선으로 하는 병원
마음까지 치유되는 생명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2012 창간호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행복의 얼굴

이해인 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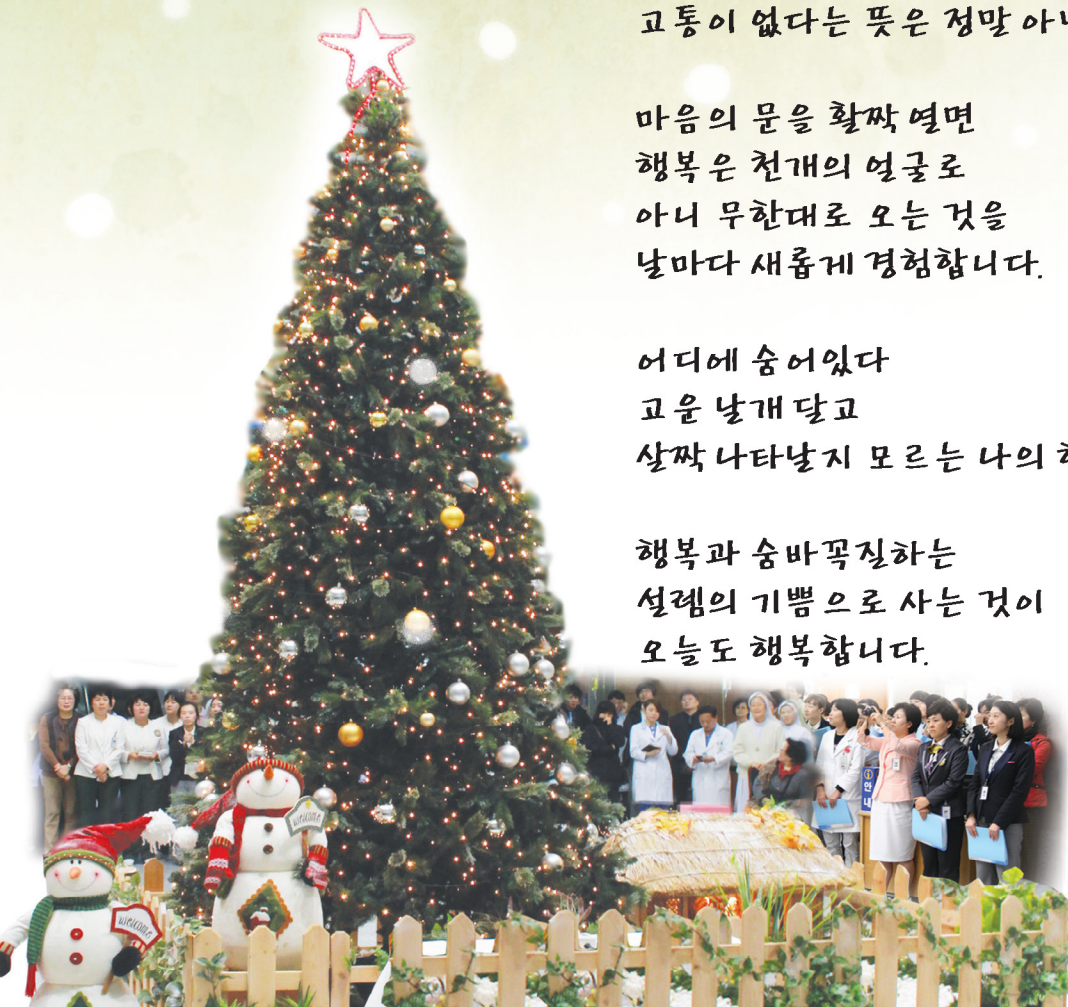
사는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행복은 천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발행일 : 2012년 12월 3일 | 발행인 : 김성원 | 편집인 : 유영순

발행처 :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지 25-14 T. 051-933-7133 F. 051-932-8636

편집 · 인쇄 : 동문인쇄 T.051-469-8963



환우의 쾌유를 우선으로 하는 병원
마음까지 치유되는 생명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2012 **창간호**

CONTENTS

권두시	02	행복의 얼굴 이해인 수녀
연혁	04	완화의료센터 연혁
권두언	05	창간에 즈음하여... 김성원 병원장
	06	우리 곁을 떠나는 소중한 사람들 정현주 완화의료센터장
호스피스 팀원들의 이야기	07	또 다른 시간을 준비하며... 최용주 마르코 수녀
	08	떠나간 아저씨를 생각하며 한수연 101병동 간호사
	09	일곱 빛깔 무지개 다리가 되어 이해영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벗님의 편지	10	사랑하고 소중한 벗님이어! 이경자
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11	호스피스 이모저모
병원시설	14	
환자교육 및 요법 프로그램	15	

호스피스란 무엇인가?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정서적·사회적·영적으로 도우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이다.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의 연혁

준비기(1996년 ~ 2007년)

- 1996년 호스피스 기본교육 실시, 산재형 호스피스 시작
- 2005년 호스피스 7병상 운영 (3인용 1실, 4인용 1실, 임종실 1실 ; 병상에서 제외)
- 2007년 4월 호스피스 병동 개설 (재활병동 겸함)
- 5월 호스피스 전담코디네이터 근무, 실제적 돌봄 시작
- 호스피스 팀회의 시작 (의사, 간호사, 사목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영양사, 약사, 물리치료사)
- 8월 사별 가족 모임행사 시작

발전기(2008년 ~ 2010년)

- 2008년 호스피스 9병상 운영 (5인용 1실, 2인용 2실, 임종실 1실 ; 병상에서 제외)
'1차 말기암 완화의료전문기관' 부산광역시 지정
- 2009년 2월 부산지역 보건소 (남구, 수영구, 금정구, 부산진구)와 부산지역암센터, 부산가톨릭대학교와 협약 체결
- 3월 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인식 교육 (매월)
- 4월 호스피스 병동 13병상으로 증설, 상근 전담사회복지사 근무
- 7월 부산교구 18개 본당에 '말기암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홍보
- 12월 '1차 완화의료수가 시범 요양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2009.12 ~ 2011.5)
- 2010년 1월 완화의료센터로 승격, 20병상으로 증설 (임종실 제외)
'2차 말기암 완화의료전문기관' 부산광역시 지정
- 3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실습지 체결 (부산가톨릭대, 고신대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과정, 부산지역암센터 호스피스표준 60시간 교육,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 10월 제1회 호스피스 사진전 개최

안정기(2011년 ~ 2012년)

- 2011년 1월 '3차 말기암 완화의료전문기관' 부산광역시 지정
- 6월 '2차 완화의료수가 시범 요양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2011.6 ~ 2012.12)
- 7월 제28차 증례발표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부·울·경 지회)
- 8월 20병상 → 26병상 증설, 간호등급 2등급
- 10월 제1회 심포지엄, 제2회 사진전 (호스피스 홍보주간)
- 11월 호스피스 기금을 위한 바자회
- 2012년 1월 사례모음집 제작 (마지막 손을 잡아 드릴게요)
- 3월 한국 가톨릭호스피스 기관 공로상 수상
- 10월 제3회 호스피스 사진전
- 제34차 증례발표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부·울·경 지회)
- 11월 창간호 '동행' 제작

도약기(2013년 ~)

창간에 즈음하여...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자금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인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이제 우리 의료인에게는 낯설지 않은 친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소의 삶의 질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용기있고, 고요하고, 평화롭게 맞이하도록 돕고, 사별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은 종교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성모병원에서는 병원 개원 초기부터 이 생명사랑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호스피스·완화의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2010년 2월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설립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도 '인간사랑'과 '영적돌봄'의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오늘의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이룩해 주신 센터장님, 팀장님, 간호사 및 각 직종의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식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돌봄을 받는 환자와 가족들, 팀원들, 그리고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께 더 좋은 만남과 대화의 광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성모병원 병원장 김 성 원 (예로니모)





완화의료센터장 / 가정의학과장 | 정현주

우리 곁을 떠나는 소중한 사람들

오늘 가을 산행을 했습니다. 비가 내려서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적어 여유 있게 늦가을 정취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촉촉한 가을비로 단풍잎은 더욱 선명한 색깔을 뽐내고 있어 아주 특별한 단풍구경을 한 느낌입니다.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이처럼 고운 단풍잎도 하나 둘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겠지요. 자연은 언제나 겸손하게 때가 되면 다음 계절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태풍과 강한 비에도 끄떡없이 푸른 잎을 자랑하던 나무도, 쌀쌀한 가을바람에는 주저함 없이 잎을 떨어뜨려 몸을 가볍게 하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인생이란 것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알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 신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여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곁을 떠나는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을 몸으로 눈빛으로 언어로 말해 주고 떠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던 한 분이 하늘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겨우 30살의 젊은 나이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과 남자친구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이 타고 가야하는 작은 쪽배에 태우지 못하고 혼자서 당당하게 떠났습니다. 나보다 어려보이는 순수함과 솔직한 성격의 그녀는 난소암으로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고, 수술 경과가 좋아 완치되리라는 확신으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간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아직 심하지 않은 상태라서 항암치료를 하면 호전될 수 있었는데, 요양원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항암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너무나 완강하게 고집을 부려서 가족들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

어 그녀가 원하는 대로 자연 치료를 받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엎드린 채로 잠을 자야 하는 그녀를 겨우 데리고 집에 왔을 때는 이미 간과 폐까지 전이가 되어 적극적인 치료는 할 수 없어 저희 호스피스 병동에 오셨습니다. 숨이 차서 회진 할 때마다 간절하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나직이 묻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옆에 앉아서 손만 꼭 붙잡고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간혹 “힘을 내세요, 외롭지 않게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라고 했지만 고통 받는 환자에게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위로만 한다는 것이 의사로서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녀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삶에 대해서 소리치고 분노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하느님과 가족들에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프기 전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고 투병을 하면서도 씩씩하게 고통과 마주하였고 받아들였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난 후에 잠시 아기처럼 쉼근거리며 편안하게 지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난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녀에게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면서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인생이여, 그대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 내 마음의 문은 언제나 그대에게 열려 있다. 그대가 몸통으로 나를 짓이길 수도 있고, 육중한 다리로 나를 깔아뭉갤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대에게 어떠한 나쁜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

죽어가는 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소중한 지혜와 호스피스 환우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 소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에 실린 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밝고 위대하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녀 | 최 용 주 (마르크)

또 다른 시간을 준비하며...

●●● 병원을 들어오는 입구의 작은 야산,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고 사시사철 바라보지만 한 번도 지루하거나 싫증이 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주고 있으니, 어느 날 연한 빛이 보이는데 싶었는데 축들이 올라오면서 연두 빛으로 산을 물들이다가 어느 순간 초록으로 변했습니다. 또 어느 날 '색이 약간씩 변하네.' 하며 바라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듯 아름다운 다양한 색의 옷으로 갈아입지요. '아름답구나!' 하며 바라보면 잎을 하나 둘 내주기 시작하더니 다 떨어뜨려 나뭇을 만들며 또 다른 시간을 준비하더군요.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변화되지 않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아마 한 순간도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멈춤이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변화무쌍하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극한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기암 판정을 받은 분들이 계시겠지요.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그런 일을 안 당하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요즘 암이 우리 가까이 다가섰다는 것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너무도 잘 알게 됩니다.

어느 보호자가 그러셨어요. "제 주위엔 암 환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암 수술하고 투병생활을 하면서 둘러보니 그동안 내가 몰랐을 뿐이지 너무도 많은 주위 분들이 암으로 고생하시고,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사별하신 분들도 많더군요. 그동안 못보고 인 들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암이 모든 이의 삶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암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죽을까?' 인데,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안고 태어났고 살아갑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활하요, 다만 잊고

살 뿐이지요. 아니 잊으려고 애를 쓰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 암으로 진단받고 투병생활하면서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받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제 병원에서 헤드릴 일은 없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가서 편안하게 잡숫고 싶은 것 잡수시게 하면서 모시세요." 라면서 퇴원하면 공기 좋은 곳으로, 요양원으로, 집으로 옮겨다니시면서 아직 호스피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러시고 가족들도 그러합니다. "정말 호스피스에 오시면 바로 돌아가시나요?" "미루다가 임종 직전에 오시면 그리되지지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오시면 한결같이 "진즉 모시고 올 것을. 이렇게 편안하고 좋고 많은 배려를 받는데 너무 몰랐어요." 하십니다.

인생은 여러가지 변화를 겪으며 살아왔고, 암으로 인해 또 다른 변화가 대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변화를 인정하고 그 순간순간마다의 삶의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었음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통증을 완화하여 고통에 짓눌리지 않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사는 것이 바빠 앞만 보고 뛰느라 사실은 가족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곳, 서로를 확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깨어진 관계도 다시 보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구요. 자연이 아름답듯 우리 인생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정말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삶이었지요. 아픔과 회한과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사랑과 감사, 희망이 교차하는 곳이 바로 여기 호스피스입니다.

아름다운 단풍이 모두를 황홀하게 하지만 또 다른 준비를 위해 떨어져야 하듯,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통하여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려 준비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듯 이제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도 창간호를 통해 새롭게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곳에 머무시는 분들과 다녀가신 모든 분들, 가족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떠나간 아저씨를 생각하며

101병동 간호사 | 한수연



●●● 101병동(호스피스)에 입사한지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슴깊이 새겨진 환자분이 있다.

먼저 호스피스병동에서는 말기 암환자이다 보니 대부분 침상안정중이거나 의사소통이 거의되지 않는 환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환자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환자들에게 깊은 정을 주기도 어려웠고, 금방 가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였다.

어느 날 멀쩡히 잘 걸어 다니시고 의사소통도 잘되는 환자분이 입원하셨다. 위암을 진단받으신 분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아 PCA(자가통증조절기)까지 달았으며 통증호소가 잦으신 분이셨다. 보호자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 병실 안에서 욕을 하며 싸우기 일쑤였고 항상 인상을 찌푸리며 앉아 계셨다. 게다가 팔에는 자신이 새긴듯 한 문신도 있어 다가가기 힘든 환자였다. 하지만 점점 통증조절이 되고 산책하는 모습도 간간히 보이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활짝 웃으시며 간호사실에 과자도 이것저것 주시고, 진통제를 달라고 하시며 ‘참 고맙다.’고 하셨다. 입원 때보다 유해진 환자를 보며 그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새겨졌었다.

항상 산책을 가실 때마다 담배를 피워서 “어유 아저씨 이제 금연하셔야죠!” 라고 나무라면 “할꺼다 할꺼다” 하며 머쓱하게 머리를 굴적이셨다. 그러다 내가 밤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도 간호사실에 바나나 우유를 주시면서 일 잘하라고 하셨다. 그러시면서 병실로 들어가 주무시다가 이튿날 아침에 갑자기 아저씨가 숨이 차다며 헉헉거리셨고, 산소수치가 80%대까지 떨어졌다. 놀라서 산소를 제공하려 하니 금방 다시 산소수치가 정상범위로 돌아왔고, 아저씨에게 좀 쉬어야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랬더니 “이 정도는 산책 한번 하고 나면 괜찮아진다.” 라며 태연하게 말씀하셨다. 또 가끔 휠체어를 타고 어딘가 가시는 길목에서 “아저씨 담배피지 마세요!” 외쳤었는데도 웃으시며 잘 지내고 계셨다. 이틀간 OFF(쉬는 날)하고 와보니 아저씨는 정신이 없으신 채로 누워계시며 목에는 가래소리가 들끓고 침상에서 나가시려고 발버둥쳐서 진정제까지 맞고 있는 상태였다. 너무 놀랐다. 며칠 전만해도 멀쩡히 얘기하고 바나나우유까지 사주시던 아저씨였는데... 그리고 며칠 뒤 점점 혈압과 산소수치가 떨어져 임종이 다가오는 순간이 되었다. 그전까지 연락이 잘 안되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니 전과 똑같이 무심하게 그러냐고 하시더니 놀래지도 않는 기색이었다. 혼자 계시는 아저씨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고,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홀대하는 가족들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그리고 입원하신지 한 달 만에 아저씨는 하늘님 곁으로 가셨다. 임종을 같이 보진 못하였지만 꿈에서 아저씨가 과자를 쥐어주고 가셨다. 그만큼 아저씨가 머릿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다. 보호자가 없어 병실에서 많이 외로웠을 아저씨를 생각하니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아저씨 하늘나라에서는 외롭지 않고, 즐겁게 지내시죠? 거기에서는 걱정 없이 담배도 피우세요! 항상 기도할게요...

일곱 빛깔 무지개 다리가 되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 이혜영 리디아



불별 더위와 싸우던 어느 날 남편 친구 부부와 함께 지리산 계곡으로 여행을 떠났다. 식당을 겸한 민박집에 도착해 산채비빔밥을 먹고 물놀이를 한 참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비를 피해 천막 아래에 앉자마자 누군가 외쳤다. “이야, 무지개가 났다. 오랜만에 보네” 하늘 저쪽에는 선명한 무지개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었다. 일곱 빛깔 무지개... 원래 무지개의 어원은 물로 만들어진 문이라는 뜻이라고 들었다. 하늘로 통하는 문과 닮았다고 해서 무지개라고 한다던가?

오늘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가 아닌 또 다른 무지개를 소개하고 싶다. 각각의 개성은 다르나 호스피스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한 팀이 되어 금요일마다 봉사하는 우리팀. 일곱 명이 되고부터 늘 머릿속엔 금요일 봉사팀은 무지개로 그려진다. 비가 장대같이 퍼부어도, 폭염이 살갗을 태워도 우리 무지개팀은 웬만하면 결석을 하지 않는다. 집에 환자가 생기거나 본인이 환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다. 얼마 남지 않은 생의 마지막 나날들을 힘겹게 이어가는 환우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절하고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 신화에는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지개라던가? 주님이 주신 이 생의 시간들을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훌훌 떠날 준비를 하는 호스피스 환우들, 다만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만난 우리들, 사회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목욕팀은 반바지로 갈아 입는 순간, 병동봉사자들은 분홍색 조끼로 갈아입는 순간, 우리들은 무지개가 된다. 사람은 각자에게 어울리는 색깔이 있을 것이다. 무지개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다른 이들과 어울리는 색깔, 알맞은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무지개가 된다.

우리는 늘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무지개가 되기를 원한다. 이 땅과 저 하늘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무한공간에 무지개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들 속에 어떤 빛깔일지 모르지만 미미한 내 몫도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한다.

사랑하고 소중한 벗님이어!

●●● 몹시도 뜨겁던 해는 산산이 부서져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이고 있구려. 덥다, 덥다 해도 올 여름 같은 더위는 처음 당해보는 것 같구려.

벗님은 다행히 가만히 누워 있으니 이 더위가 이해도 안 되고 느껴보지도 못하겠지만 정말 이 더위는 말로 할 수 없으리 만큼 힘들구려.

잊혀져가는 이름이 머물렀던 곳 그 사라짐의 아쉬움은 이름 없는 들꽃 되어 기억의 끝자락을 흔들며 보는구려. 한동안 너무나도 슬프고 마음이 아려서 견딜 수가 없었소. 이제 우리의 인연도 끝이 되어 가는 건가. 그 끝이 언제인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향기를 팔지 않는 2월의 매화가 생각나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무게에 등이 휘어지던 지난 날(그때). 살아만 있어준다면 반드시 좋은 일 꼭 찾아 올까요. 그렇게도 아름답게 반짝이던 별도 지고나면 하늘도 슬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어둠은 조금씩, 조금씩 짙어만 가는구려.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벗님이어!! 꼭 이겨내고 더 많은 시간, 세월, 많이많이 보고 웃으면서 즐겨 봅세. 알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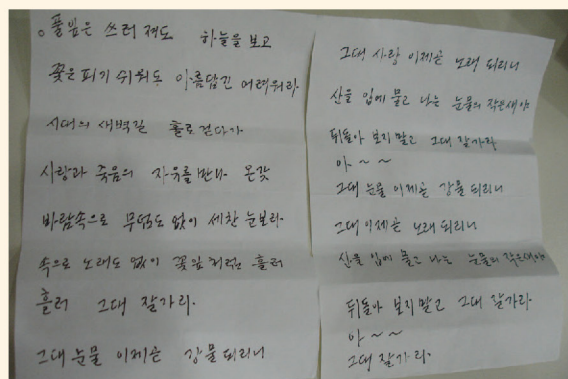
날씨가 요즈음은 더운게 아니라 뜨겁다 못해 폭 폭 살아진 찜통이 따로 없구려. 그러니 누워서 잡생각 말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를 손에 쥐고 하루하루가 힘들겠지만 좋은 생각, 즐거웠던 지난 날 들만 생각하고 잘 견디어 주기 바라오. 내가 벗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지 잊지 말아주길...

힘내고 우리 꼭 다시 만날 날을 기원하면서 아름다운 구월 "가을"을 기다리면서 이 더위 잘 견디어 보려고 인간힘을 하고 있다오. 알았죠. 벗님도 꼭 힘내고 죽도 잘 챙겨 드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만 가지시고 하루 속히 옛 모습 보여주기 바라오.

벗님의 快樂를 두 손 모아 비나이다.

다음 만날 때까지 더 나은 모습으로 그날을 기억하면서.....'

벗 이경자님께서 환우에게 보낸 시간



환자 김○○님은 그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9월 중순께 하늘님 품에 안기셨다.

1. 제3회 사진전 개최

완화의료센터에서 환자와 보호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다양한 행사와 요법들을 사진 촬영하여 2010년 1회에 이어 2012년 제3회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병원1층 로비에 전시하여 오고가는 환자, 보호자, 방문객들의 관람으로 사진을 보고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인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코너를 준비하여 의견을 적도록 하였는데 많은 응답에서 호스피스는 사랑·감사·배려·평화·안위 등으로 표현하였다.



2. 10월11일 제 34차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증례 발표

직원 및 외부 관계자들 160여명 참석으로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일정은 완화의료센터 투어, 간단한 식사, 김준현 진료부원장님의 인사말씀을 시작하여 완화의료센터 동영상 '아름다운 동행'을 보았다. 완화의료센터 및 환자소개를 유영순팀장. 이후 진료부분 정현주가정 의학과과장, 간호부분 하미혜수간호사, 사회복지부분 문정아사회복지사, 영적부분 최용주(마르코)수녀, 자원봉사부분 이영숙봉사자 순으로 증례발표를 진행하였다.

제34차 호스피스 완화의료 증례발표
일시 : 2012. 10. 11(목) 13:30~16:30 *장소 : 부산성모병원 4층 배리극대 홀 *주최 :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협회 부산·경남·제주지회 *주최 :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 협회



3. 호스피스·완화의료 6권역(부산·경남·제주)

10월 13일 창원상남분수광장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6권역(부산·경남·제주) 팀들이 모여 '호스피스 바로 알기' 캠페인을 함께 했다. 부산성모병원에서는 9명(직원 및 자원봉사자)이 참석하여 창원 롯데백화점을 돌아서 거리 캠페인을 하였다.



4. '한국가톨릭 호스피스 20주년 기념행사'

10월 15~16일 양일간 안양 라자로 마을 아론의 집에 원목 담담 김대하신부님 외 32명이 참석하였다. 주제는 '돌보는 이의 성장을 위하여'로 이해인수녀님의 격려사와 조성호교수님, 최용진신부님의 강의를 통하여 소진하였던 호스피스팀원들의 충전의 시간이 되었다.



5. '2012년 사별가족 만남의 날'

10월 30일에는 '2012년 사별가족 만남의 날'을 정하여 50여명의 사별가족들과 미사/장미를 봉헌한 후 다채로운 행사를 하였다. 한국무용, 기타와 오카리나 연주, '아름다운 동행'의 동영상, 하늘에 계신 그이께 편지 쓰기, 풍선날리기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함께 울고 웃었다.



사진전이 진행되는 동안 직원 및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을 이모저모 알 수 있었는데 호스피스에 대한 의견과 사진전에 관한 감상도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고마움을 전하며 그 중에서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호스피스에 대한 생각

- 남은 여명을 좀 더 보람되게 가족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 감사 & 사랑 & 배려가 공존하는 소중한 시간
- 시간을 “황금”처럼 여기고 소중히 보내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는 곳
- 함께하는 행복을 실천함으로써,
남아 있는 날이 더 값진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 여기 지상보다 훨씬 더 좋은 천상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는 행복한 시간,
기쁨과 감사의 시간
-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이며, 앞으로 시작될 영원한 삶의 준비.
-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고 즐겁게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곳
- 마지막 순간을 외롭지 않게 준비하고 위로 받을 수 있는 곳
-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끝까지 힘내서 사랑하는 곳. 핫팅!
- 남겨진 것들과 보내져야 할 것들에 대해 실천하는 순간
- 호스피스... 마지막을 함께 하며 잘 보내주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호 : 호호호 하하하 울고 웃고 지낸 세월
스 : 스스로 뒤돌아 봤을 때
피 : 피하고 싶지만 용기를 내어서
스 :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준비해서 ‘안녕’ 인사하고 함께 하는 것.



♥♥♥ 호스피스·완화센터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주셨습니다.

- 치유를 도우시는 손길 너무나 감사히 생각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 손길
주님의 한없는 은총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 헌신하는 그 손길 위에 주의 크신 은혜 충만하길 바랍니다.
모든 환우 분들이 주의 충만한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 어느 곳 보다 정성스럽고 쾌적함에 감사드립니다.
- 소중한 생명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별이 되소서!
- 호스피스의 감사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스피스에 대한 또 다른 긴 의견

제가 생각하는 현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감히 말씀드려보자면...

기계식「주입-반응」관계를 거의 100%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세가 「이러함」일 때는 「치료제 x mg/ 시술 or 수술」이런 식으로 거의 1:1로 판단하고 결론짓는다는 점이지요. 현 호스피스 제도라는 것 “이러한 의학계의 한계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나름의 혁신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물질적·수술적 조치를 취해야만 병이 소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물리적인 신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종양만을 제거하기 위해 인위적 물질을 주입하고 이 물질로 인해 유발된 부작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또 치료약을 투입하는 식” 결국 환자는 하루 온종일 약 먹는 시간과 번거로움과 부작용으로 하루하루를 싸우게 되죠. 결국, 본래의 병과 함께 약에 찌든 심신까지 견뎌내야 하는 이중고를 안아야만 합니다.

저도 환자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로서, 지난 몇 년간 우리 의학계가 지닌 한계를 뼈저리게 체감해 왔습니다. 양의학은 한의학을 무시하고, 한의학은 대체의학을 경계하며, 대체의학 중엔 제대로 된 지식 없이 환자들을 현혹하기 일쑤인 것이 많습니다. 무지한 환자와 가족들은 의학계에 이만 뽕뽕뽕 갈뿐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환자는 환자대로,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시간적 여유를 무의미하게 소진하는 실태입니다. 결국, 해답은 제도적 접근입니다. 개인 한명 한명이 주장한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의학계 종사자들도 자신들이 배운 이론들이 100% 정답은 아님을 인정하고, 안주하는 치료보다는 발전적이고 효력 있는 치료를 위해 진심을 다해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호자들 또한, 환자의 치료를 100% 의료인들에게 맡기거나 책임을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계 가족인 자신들이 환자가 겪고 있는 질병에 큰 원인을 끼친 장본인은 인정하려 들지 않고, 단순히 돈으로만 해결하려든다거나 의료인들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부과하게 하는 추태는 이기적인 시대상에 편협 하는 고약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환자의 아픔은, 자신들의 과오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환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때, 비로소 환자는 치료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얻어진 병을 탓만 하기 보다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과오를 뉘우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다면, 의료인들 역시 자신들의 직업적 사명감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보람된 치료와 연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삿대질만 해 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는 서로의 밑바닥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추태스런 “show”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산성모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 환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보여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늑하면서도 진정어린 분위기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보다 획기적이고 아름다운 제도들이 다양하게, 편리하게 도입되길 기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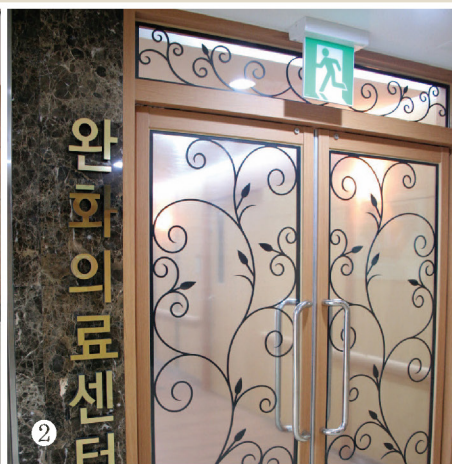
보다 쉽게 접근될 수 있길 바래보며..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아무튼 감사했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병원시설 Infirmery Accommodations



1



2



3



4

호스피스병동

1. 10층 완화의료센터 로비
2. 완화의료센터 병동 입구
3. 간호사스테이션
4. 가족휴게실
5. 기도실
6. 완화의료센터복도
7. 임종실
8. 1인실



5



6



7



8



환자교육 및 요법 프로그램

Patient education and Therapy Program

본원 완화의료센터에서는 환자의 증상 완화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요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 및 가족교육	환자 간호에 필요한 정보	수시 교육
	영양관리교육	매월 첫 금요일
음악요법	미리내 오카리나 앙상블	격월 첫 월요일
	오카리나 - 남구문화예술원	매월 3째 월요일
	노래중창 - 모자이크여성중창단	격월 첫 월요일
	노래중창 - 안젤리카성가대	매주 목요일
	푸른 사랑 음악회	매월 2째 토요일
	아코디언 연주	2, 4주 수요일
	색소폰 & 플루트 연주	매월 4째 토요일
원예요법	피아노 연주	매주 화요일 오후
		1, 3, 5주 수요일
풍선아트		매월 3째 화요일
네일아트		수시 제공
무용, 창		매월 3째 월요일
명상요법		매주 목요일
차 봉사	환우 및 보호자 방문객 대상	매주 수요일
목욕서비스		매주 월, 화, 금요일
이미용서비스		매월 첫화요일 및 필요시 수시 제공
사별가족모임		격월 짝수달 4째 화요일

** 환자 및 보호자 식사제공 : 특식 및 간식 제공

** 환우 생일 및 기념일 축하, 사진 촬영 등

■ 미사시간 안내 ■

월-금요일 : 오전 11시, 토-일요일 : 오전 9시
(원목실 : 933-7050, 7051)

※ 매달 마지막주 화요일 호스피스에서 선종하신 분을 위한 위령미사(오전 11시)

입원절차



완화의료센터 외래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정현주 김선경	김선경	정현주 김선경	정현주 김선경	정현주 김선경	정현주(1,3,5주) 김선경(2,4주)
오후	정현주 김선경	김선경	정현주	김선경	정현주 김선경	

- 정현주과장 외래진료 051) 933-7971 * 단 가정의학과 외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료함
- 김선경과장 외래진료 051) 933-7243

문의 및 예약안내

- 병 원 대 표 전 화 TEL:933-7114
- 완화의료센터상담 TEL:933-7133
- 완화의료센터병동 TEL:933-7100
- 추 모 원 TEL:933-7480, 7129

오시는 길



- 서면방면 20, 24번
 - 동래방면 131번
 - 마을버스 남구 2, 2-1, 8번
 - 부산역방면 22, 27번
 - 해운대방면 39번
- 부산성모병원 정류소 하차(서틀버스 운행)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TEL:051)933-7133 FAX:051)932-8636